

080121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Ephesians) 4:1-6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고백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고,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하는지 먼저 물으신 거죠. 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를 고백한 그 신앙고백에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당연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에 고백이 가지고 살아야 영적인 승리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는 분명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사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말해서 주님의 교회를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경배하구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자기 자신의 삶으로 심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귀 기울이기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에 우리의 관심이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기보단, 하나님을 부리시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경건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판단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았고 무언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약속의 땅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곧 이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경건함을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판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의 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예요!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이나 고라와 다단은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통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건을 경건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이 판단의 잣대로 쓰여지는 순간 경건은 더 이상 경건이 아니게 되요. 경건은 판단하라고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는 에베소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교회는 지금의 터키 서쪽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번창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목회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랬으니 에베소교회는 바울에게 남다른 감회가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상공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는데,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도 그곳에 있었고,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는데, 에베소는 풍요로우면서도 퇴폐와 향락에 젖어 살았던 곳이기도 했지요. 반면에 에베소교회는 변변한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든든한 목회자가 항상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새신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며 이끌어 나갔습니다. 에베소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분열의 위험까지도 있었습니다.

해서 바울은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에베소서를 읽는 동안 우리 각자의 신앙이 회복될뿐 아니라, 교회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구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소망이 새로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

하락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로가 겸손과 은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도들 간에 평안의 성령의 줄로 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부르심에 있어서 ‘끼리끼리’ ‘따로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구원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되어야 함은 하나님의 하나이신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한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하나 됨은 섬김과 역할의 다양한 모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각자의 직분과 은사를 감당함으로써 교회의 유기적인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해서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딸/자녀)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는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었고, 세리와 창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주위에는 낮고 천한 사람만 있었던게 아니에요. 백부장 같은 로마의 장교도 있었어요. 또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 의회 의원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지방의 거부 요셉도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낮고 높은 사람을 차별 없이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음은 물론이구요, 모든 사람을 당신 안에서 온전히 통합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모자라는 사람, 그 모두가 한 형제자매로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학력, 직업, 재력, 출신지역,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된다는 건,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자리는 마음 또는 영혼 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생각이 일치된 데 있다거나 예배의 형태나 양식이 일치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이나 영혼이 일치된 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힘써서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획일화가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3절). 평안은 매는 것이라고 했어요. 평안은 히브리말로 '샬롬' 헬라말로 '에이레네'인데, 그 뜻이 to unite입니다. 가느다란 가지들이 서로 결합되어지면 강하게 됩니다. 해서 전도서 4장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가지들이 한 다발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길이와 다른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결속되어질 때 그들은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본래부터 아주 굵고 강한 것보다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11:19-20,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웨어필드 그레이스 연합감리교회도 오늘 성경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있지 복음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우리의 미련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